



「2022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시험대비」 정혜영 전문상담 모의고사 및 해설(3)

| 정혜영 교수 | 박문각임용고시학원

05. (가)는 전문상담교사인 김교사가 현제(고2, 남)를 상담하는 측면 내용이고, (나)는 김교사가 슈퍼비전을 받는 대화 내용이다. 프로이드(S. Freud)의 정신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조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4점]

< 가 >

김교사: 현제야, 오늘 상담에 20분 늦게 왔는데, 이유가 있니?
 현 제: 친구들이랑 말싸움을 하다가 기분이 안 좋아서 잠깐 떤 생각을 했더니 상담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김교사: 그랬구나. ① 네가 지난 시간에도 상담에 20분 정도 늦었었는데, 네가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지만 실은 그동안 너에게 지나치게 간섭해온 것이 숨이 막혀왔다는 것을, 그래서 네 삶을 네 스스로 선택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 이후부터 상담 시간에 계속 늦고 있어.
 현 제: (불쾌한 어조) ② 그 얘기는 그만 하면 안될까요? 너무 피곤하네요.
 김교사: 음... 현제야, 선생님이 보기에 네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중으로 보여.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네가 말하고 싶지 않은 감정, 생각들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것이 불편해지게 된단다. 내가 보기에 지금 네 상태가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현 제: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하고 계신 모습이 꼭 엄마 같거든요? 그만 좀 간섭하실래요?

< 나 >

김교사: 선생님, 제가 현제라는 학생을 상담하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에 대해 반항심이 생겨 갑자기 공부도 그만 두고 집에 늦게까지 들어가지 않았던 학생이예요. 저와의 관계에서도 전이가 형성되었고, 그래서 상담을 통해 전이현상까지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은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구요.
 슈퍼바이저: 상담을 참 잘 진행하셨군요.
 김교사: 그러나 아직도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제가 현제의 학교생활이나 공부과정에 대해 물어보거나 도움을 주려고 하면 관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간접으로 받아들여서 반항적인 행동을 하곤 해요.
 슈퍼바이저: 그렇다면, 이제부터 ③ 담임선생님이나 김선생님에게 반항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원인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저항감과 분노감 때문임을 반복적으로 깨닫도록 매 회기마다 김선생님께서 현제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찰시키는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제가 실제로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지금 김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을 깨닫고 바꿔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도와야 하구요. 이러한 반복을 통해 현제가 실제 생활에서 전이로 인한 부적응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 조건 >

- 프로이드(S. Freud)의 정신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가)의 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개념의 명칭과 정의를 서술하시오.
- 프로이드(S. Freud)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슈퍼바이저가 말하고 있는 ③에서 적용되고 있는 치료기법의 명칭과 정의를 서술하시오.

번호	평가 영역		핵심 개념	배점	난이도
	대분류	소분류			
5	상담이론과 실제	정신분석적 상담	저항, 훈습	4	중

[출제 의도]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의 저항의 개념과 훈습의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모범 답안]

- ①의 현상은 저항이다. 저항이란 무의식과 의식의 장애물로서 치료적 진전을 방해하는 현상이다.(치료적 진전을 방해하는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③의 기법은 훈습이다. 훈습이란 상담과정에서 통찰을 한 것을 현실문제와 연결하여 끊임없이 해석해주는 과정으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기법이다.

[해설]

- 저항
 - 정의: 무의식을 보호하기 위해 내담자가 자신도 모르게 하는 행동. 저항은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장애물로서 치료의 진전을 방해하는 현상이다
 - 원인: 상담자가 상처와 문제에 제대로 접근해 올 경우, 그 상처를 들여다보기 싫어 치료 장면에서 벗어나려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 저항의 특징: 핵심적 문제에 거의 다 도달했을 때 저항은 강하게 일어난다. 저항은 저항의 역설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저항이 있으면 핵심 문제에 잘 도달했다는 의미로 상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지만 내담자는 힘들기 때문에 상담자가 계속 밀어붙여서 진행시키려 할 경우 드롭 아웃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훈습
 - 정의: 상담과정에서 통찰을 한 것을 현실 생활에서 실행함으로써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상담자와 노력하는 과정
 - 상담자는 함께 견디며 적절한 강화를 해주며 내담자의 핵심 문제와 패턴을 현실문제와 연결하여 끊임없이 해석해주어야 한다

[채점 기준] – 각 1점

06. 다음은 주제통각검사(TAT)와 벤더게슈탈트검사(BGT)에 대해 궁금해하는 학교장의 질문에 대해 전문상담교사인 김교사가 응답한 내용의 일부이다. 밑줄 친 ① ~ ④은 모두 잘못 응답한 내용이다. 각각에서 잘못 반응한 부분을 찾아 모두 바르게 고쳐 서술하시오. [4점]

< 대화 내용 >

[TAT에 대해 나눈 대화]

학교장: TAT라는 검사가 참 흥미로운데요, 어떤 식으로 실시하는지 간략하게 알려주시겠어요?
 김교사: 보통 20장의 카드를 10장씩 나누어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합니다. 1회 검사를 실시할 때 지시문에서는 ① “몇 장의 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될 수 있는데로 구적인 이야기를 만들 어보세요.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각 카드마다 5분 정도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카드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학교장: 그렇군요. 각 카드들을 보니 카드 안에 인물이 성인도 있고 아이도 있군요. 연령에 따라 카드 사용이 달라지게 되나요?

김교사: ② 네, 카드 뒤페이지에 성인(A)과 청소년(Y)으로 구분되어 표기가 되어 있어 이 카드는 성인, 청소년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BGT에 대해 나눈 대화]

학교장: BGT는 제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검사인데 어떤 검사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김교사: 9개의 기하학적 도형이 그려져 있는 카드를 피검자에게 제시하고, 피검자에게 그 도형을 묘사하여 그려보도록 함으로써 피검자의 기질적 장애 및 심리적 장애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말합니다.

학교장: 그렇군요. 어떻게 검사를 시작하지요?

김교사: 모사단계의 경우 ③ “지금부터 카드를 한 번에 한 장씩 보여드릴 거예요. 카드에 간단한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보고 종이에 그대로 따라 그리세요. 미술능력검사는 아니지만 될 수 있는데로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려야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학교장: 모사단계 외에 다르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나요?

김교사: 네. 예를 들어 ④ 회상법의 경우, 기질적 장애에 있는 사람과 아닌 경우를 변별하는 방법으로 카드를 몇 초 동안 보여주고 치운 다음에 그림을 기억했다가 그리도록 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평가 영역

번호	평가 영역		핵심 개념	배점	난이도
	대분류	소분류			
6	심리검사	TAT, BGT	실시절차, 특징	4	중

[출제 의도]

투사검사인 TAT와 BGT의 실시절차와 검사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모범 답안]

- ① 지시내용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그림에 나타난 장면이 있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카드 뒤페이지에는 성인(A), 청소년(Y)으로 표기되어 구별되지 않고 남자(M), 여자(F), 소년(B), 소녀(G)로 표기되어 성별과 연령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③ 될 수 있는대로 빨리 그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리든 천천히 그리든 상관없다. ④ 회상법은 모사단계 그린 그림을 기억후 다시 그리게 하는 것으로 해당 방법은 순간노출법에 해당한다.

[해설]

■ TAT 검사도구

- TAT 도판의 각 카드 뒷면에는 카드를 선정할 때 고려할 남자와 여자, 소년과 소녀의 성별, 연령구별 제시. 각 카드 뒷면에 남자(M), 성인여자(F), 소년(B), 소녀(G) 등으로 구별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피검자의 연령과 성에 따라 카드를 선정한다. TAT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부터 몇 장의 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그림을 보면서 될 수 있는 대로 구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림에 나타난 장면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셨나요? 각 카드마다 약 5분 정도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카드가 있습니다.”

■ BGT 실시지침

- 모사단계(copy phase): 피검자에게 모사할 용지, 연필, 지우개를 주고 9매의 BGT 카드를 책상 위에 옆어둔 뒤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카드를 가리키면서” 지시부터 이 카드를 한 번에 한 장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카드에는 간단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종이에 그대로 따라서 그리십시오. 빨리 그리든 천천히 그리든 상관없습니다. 이 검사는 미술능력의 검사는 아니지만 될 수 있는데로 정확하게 그리십시오.”
- 순간 노출법: 뇌장애가 의심스러울 때 자극 도형을 노출하는 데 시간차를 두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사 단계와 별 차이가 없다. 아래와 같이 지시한 다음, 도형 A를 5초 동안 보여주고 치운 뒤 피검자에게 이를 그려보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9장의 도형을 다 그리게 된다.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당신에게 몇 장의 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카드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들을 몇 초 동안만 보여드리고 치울테니 그림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그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회상법(Recall phase): 기질성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별이. 이것은 모사 단계에서 그린 그림을 기억해서 다시 그리게 하는 것이다. 즉 기억과 관련된 손상을 보는 것으로, 마지막 카드는 보여주지 않고 지금까지 보았던 도형을 기억해서 기억나는 것을 모두 그리라고 한다.

[채점 기준] – 각 1점